

사순 제 2 주일

제1독서 : 창세 12, 1-4

제2독서 : 2 디모 1, 8-10

복 음 : 마태 17, 1-9

# 숲 정 이

이 주일의 화답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랐던 그대로  
어여뻐 여기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강론

### 주 예수 우리의 희망

곽중남 신부/인후동 성당 보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 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겪으실 수난을 예고하신 후,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간다. 우리는 삶 안에서 희망으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다. 모두 다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인생이다. 그것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고통과 시련만큼 사람의 희망을 가로막는 것도 없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겪으셔야 되는 수난에 대한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 분명 절망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 당신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임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모습은 그것을 잘 증명해준다. 믿음이 약한 제자들은 실제로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다.'(요한 20,19)고 전하고 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신앙인인 우리의 삶과도 같은 것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로마 8, 18)라고 사도 바오로가 말한 것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데 수반되는 고통은 영광이라는 바다에 이르는 가느다란 물줄기인 것이다.

분명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며, 모든 사람의 희망이다. 오늘 미사의 제 1독서, 제 2독서, 그리고 복음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심을 확신시켜주고 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를 따르리라'라는 성가를 보면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주 예수 우리의 희망, 우리의 행복, 내 일생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리, 생명의 길 밝혀 주시니, 주님을 따르리, 십자가 길로 주님을 현양하리, 사랑의 길로 ...'

## 소리

### 언제까지

얼마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한자 병용 추진 방안을 발표하여 찬반 양론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씩씩한 일이다.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우수한 글을 가진 민족이 어렵기 짝이 없는 남의 글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현실이 씩씩하다.

우리말로 된 벼슬이름, 땅이름 등이 6세기경부터 한자에 의해 밀려난 것은 토착 세력이 사대세력에게 밀려난 것을 의미한다. 불행한 일이다. 아마 그때도 요즘말로 하자면 세계화나 국제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말을 한자로 바꾸었을 것이다.

세종대왕이 15세기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으나 그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한자가 우리글방의 아랫목을 차지하였다. 그걸 몰아내자고 한글 전용을 추진한지 50년뿐이 되지 않았으나 이제 신문과 잡지를 비롯한 일상에서 한자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그러자 위기 의식을 절감한 한자 세력들이 교양이네 학문이네 관광을 들먹이면서 안간힘을 다하여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한문혼용 시대가 아니라 국영문혼용 시대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한자를 갖고 다룰 때가 아니다.

사대 세력들은 우리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지금은 한자를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아마 100년후에는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우리글을 알기 위하여 언제까지 남의 글을 배우면서 살 작정인가. 「인」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성부의 해에 초점이 되는 성사는?”

대희년 준비를 위한 세 번째 해인 성부의 해에 초점이 되는 성사는 고해성사 곧 화해성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사는 특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처난 관계들을 치유하고자 용서와 화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해 준 것(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 31-46 참조). 최근 한 신학교 학장이 성체성사와 일상 생활의 관계에 관해 연설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세상의 모든 진리를 소유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영혼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말을 인용하면서 계속 말하였다. “우리 인생이 저물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드러내었는가? 또 어떻게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용서와 화해를 필요로 하는가? 우리 본당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가?

주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고 기도한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용서하는 그런 방식으로 용서를 받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혹시 우리는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마시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은가?

화해성사는 매일의 삶 안에서 화해를 추구하고 체험할 때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가족들은 기복이 많은 가정 생활에서 참으로 용서와 화해를 한 적이 있을 때 화해성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들이 언제나 “사랑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는 것과, 다른 사람과 화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대희년 준비를 위한 이 해가,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정도로 우리 신자들 안에 화해를 불러 일으키는 기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가톨릭 신자로서 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안에 어떻게 화해를 촉진할 수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단체 안에서는? 본당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본당에 화해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우리 본당은 교회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가? “은총의 때인 이 희년에 저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아버지께서는 넘치는 사랑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녀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맞아 들이시어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베풀어주시나이다.”(성부의 해 기도 중)

- 「대희년을 준비하며 - 하느님 아버지」 참조 -

가톨릭, 은총의 대희년 2000년 대희년까지, 300일 남았습니다.

“99년 가톨릭 수학교실” 개강안내

일시 : 3월 8일(월) 오후 7시 30분 수강료 : 3만원  
내용 : 초급반 6개월(주 1회) 장소 : 가톨릭 센터 별관 1층  
문의전화 : 284-5290

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모집

대상 : 관현악 전공자 접수 : 3월 12일까지  
문의 및 접수 : 천주교 전주교구청 사목국  
(0652) 285-0041~3

**죽림리조트 유행온천**  
당뇨, 피부병, 신경통 위장에 특효  
사우나, 대중탕, 가족탕, 여관  
이 봉 근(바오로)  
국 장 호(요셉)  
☎ (0652) 232-8832  
(0652) 232-8757

**가 나 석 유**  
보일러 동유, 사무실 난로 동유  
보일러 무료 점검 서비스  
\* 신속배달  
대표 : 임 영 님(글라라)  
☎ (0652) 286-5151  
(0652) 285-9495

**김제치과의원**  
송 기 심(골롬바노)  
김 성 자(골롬바)  
김제시 요촌동 금만사거리  
☎ (0658) 544-2875-6  
FAX (0658) 544-2876

**토털 패션 IMA+**  
영캐주얼, 보세의류 전문 패션몰  
김 문 식(베드로)  
심 점 순(데레사)  
객사뒤 K.F.C 앞  
☎ (0652) 231-7853

궁금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 원래는 미사 때나 고백성사, 성체를 모실 때에는 미사보를 써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성당에 갔는데 신부님께서 여름에는 더우니까 쓰지 말라고 하였고, 그것으로 습관이 되어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속 쓰지 않는다더군요. 미사보를 꼭 써야만 하는지, 그리고 미사보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여성들이 미사보를 쓰는 이유는 치장한 머리를 가림으로써 겸손한 자세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때부터의 전통이지요. 구약성서 시대 유다사회에서 여자가 쓰는 베일은 자신이 결혼한 신분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남편에 대한 순종을 상징하였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 사도 바오로 시대에 고린토 지역에서는 자유주의 사조가 팽배했고, 종교집회 때에도 여성들이 복장과 행동에 신경 쓰지 않고 베일도 쓰지 않았어요. 여성들의 겸손은 그들의 행동과 베일에 의해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여성이 머리를 가리게 된 것은 사도 바오로의 권고입니다(1 고린토 11, 2-16). 이러한 관습이 그 이후 교회 전례에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시대가 변하면서 신자들이 미사보를 쓰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더운 나라는 물론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미사보를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미사보를 꼭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미사보를 쓰는 것은 교회의 전통을 유지하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느님 앞에 겸손되어 나아가는 신앙의 미풍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요십이 (1334) 김병오



교구·제 단체 소식

3월 1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평화동 성당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성전 축성식이 있습니다. 신자분들께서는 많이 오셔서 새성전 건립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재경사제양성후원회월례미사 : 3월 1일(월), 오후 2시, 압구정동
2. 성직자 모지미사 : 3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치명자산 성직자 모지
3. 사제연수회(1차) : 3월 2일(화)~4일(목), 나바위 피정의 집
4. 레지오 간부학교 : 3월 6일(토)~7일(주일), 나바위 피정의 집
5. 가톨릭 문우회월례모임 : 3월 6일(토), 오후 3시 30분,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6. 휘폴라레 하루 마리아블리 : 3월 7일(주일) 오전 10시부터(미사있음)
7. 성모기사회 월례회 : 3월 6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성당
8. 기억할 사제 : 3월 1일, 이현석(미카엘)신부, 29주기  
3월 6일, 이약술(요셉)신부, 39주기  
3월 7일, 한공열 주교, 27주기
9. 사제체육대회 : 3월 8일(월), 오전 10시, 해성학교 체육관
10. 천호피정의집 피정 : 3월 11일(목), 주제 - 생활안에서의 십사처 지도 - 양경배 신부
11. 김교동신부 전화번호 변경 : 국가번호(54) 지역번호(11) 사제관 4633-4731  
수녀원 4634-0025 사무실 4634-0045, 4631-4103  
FAX 4633-8351

**성 소 피 정**  
 날짜 : 3월 13일(토)~14일(주일)  
 주제 :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가르멜회 장석훈 신부님과 함께)  
 장소 : 경로수녀회, 성 요셉동산 문의, 신청 : (0652) 243-1440

**척추 디스크 치료기**  
 서울 백병원 2년 임상실험 82%이상 호전  
 허리요통 3일내 통증완화  
 김 중 진(스태파노) 다가동 복지성당 옆  
 창 의 메디칼 ☎(0652)282-1610-1

**제일장문외과**  
 (구. 제일학문외과)  
 대장·항문 전문병원, (치질, 치루, 치열, 항문주위 농양, 변비), 유방 클리닉  
 의학박사 최 성 양(루가) 전문의 안 해 선  
 익산시청 ↔ 북부시장 사이 ☎(0653) 858-7575, 7585

**노송신협 슈퍼마켓**  
 부식납품전문  
 • 풍년제과 직영점  
 • 목우촌 정육, 해직판장 (조합원은 장려금을 드립니다.)  
 이 정 호(마르코) 안 병 옥(마르타)  
 전교정문앞 노송신협 2층 ☎(0652) 231-5270

**다솔 유치원 원아모집**  
 • 놀이중심의 통합교육  
 • 피아제 교육  
 맞벌이 부부를 위한 중일반도 운영합니다.  
 김 승 원(토마스 아퀴나스) 서 현 숙(소화 데레사)  
 호성동 파출소 뒤 50m ☎(0652) 253-8760

**LG 에어컨 예약**  
 15~23% 할인 + 6개월 무이자  
 식당용 냉장고 파격세일  
 백제로 빙상경기장 건너편  
 원 승 연(도 밍고) ☎(0652) 241-2000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덕진** 주임신부 272-5303 사 무 실 272-5302 주임신부 박 찬 길  
 김 수 언 272-5304 주임신부 김 철 우  
 보좌신부 252-0383 수 언 원 272-5304 보좌신부 김 철 우  
 F A X 271-1937 유 치 전 252-0384 사목회장 이 동 우

- ◎ 환영 : 이 호산나 수녀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1. 금주 모임 : ① 빈센시오회비 납부주일 - 매미사 전후 ② 성모회 - 2일 (화) 전 10시, 성당 ③ 성모성심부녀회 - 3일(수) 전 8시, 경기장 앞 ④ 까리따스자모회 - 3일(수) 전 11시 ⑤ 성시간 및 성체조배 - 4일(목) 전 6시 30분~후 7시 \* 지정된 시간에 각 반별로 성체조배 참여바랍니다.
- ⑥ 제대회 월례회 - 4일(목) 후 2시 ⑦ 사목회 월례회 - 5일(금) 후 8시
- 2. 1차 사제 연수 : 2일~4일까지, 나바위 피정의 집  
 \* 신부님 연수기간 동안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  
 사제연수 관계로 2일(화) - 전 6시미사 있음, 3일(수) - 미사없음
- 3. 레지오 간부학교 : 6일~7일, 나바위 피정의 집
- 4. 사순절 성서필사 : 마르코 복음 전체, 전신자 참여를 바랍니다.
- 5. 미사시간변경 안내 : 토요일 - 전 6시(신설), 후 4시- 어린이, 5시 30분 - 중고생 및 일반목전, 주일 - 전 6시, 9시, 10시 30분(교중), 후 7시 30분, 저녁미사 - 후 7시 30분 6 미사전례에 봉사해 주실 형제, 지매를 찾습니다 \* 문의 - 전례담당 수녀님, 전례부장
- 7. 감사헌금 : 익명 10만, 김경남(크리센시아) 5만원, 이순덕(데레사) 5만원
- 8. 금주 전례 : 해설 - 오호정, 독서 - 정귀진, 강순이, 봉헌 - 덕진 7만
- 9. 차주 전례 : 해설 - 오호정, 독서 - 이종권, 소남이, 봉헌 - 덕진 8만
- 10. 금주 청소 : 6일(토) 후 2시 - 진복회, 은총의 어머니 Pr.
- 11. 차주 청소 : 13일(토) 후 2시 - 중고학생회, 일치의 모후 Pr.

□ 지난주 봉헌금 : 1,863,760원 □ 교무금 : 2,288,000원

**동산** 주임신부 212-3232 사 무 실 212-3231 주임신부 김 진 화  
 F A X 212-3722 수 언 원 212-3233 사목회장 최 승 호

- ◎ 조미희(오틸리아)수녀님! 환영합니다.
- 1. 오늘 모임 : ① 사제양성후원회, 제대회, 애영회 구역(반)장회의 - 전 11시 ② 청년회 - 후 8시
- 2. 주간 모임 : ① 사제연수회 - 2일(화)~4일(목), 나바위 피정의 집 \* 2일, 3일 - 말씀의 전례 있음 ② 노인대학 개학 - 5일(금) 전 11시 ③ 구역(반)모임 - 5일(금) 후 7시 30분 ④ 청년회 피정 - 6일(토)~7일(일), 천호피정의 집 ⑤ 레지오 간부학교 - 6일(토)~7일(일), 나바위 피정의 집 홍중철, 허남철, 김중원
- 3. 차주 모임 : 우리들의 어머니 Cu. - 전 11시
- 4. 사순시기동안 미사 30분전에 십자가의 길 기도 있음 5. 사순절 저금통을 정성껏 실었습니다. 6. 점심 안내 : ① 금주 - 중재자의 모 후 Pr. ② 차주 - 가난한 이의 어머니 Pr.
- 7. 금주 전례 : 해설 - 김계옥, 독서 - 김의진, 이영숙 봉헌 - 이동일, 이봉순
- 8. 차주 전례 : 해설 - 권현식, 독서 - 박용규, 강화란 봉헌 - 권일용, 이봉순
- 9. 사제관 수녀원 봉헌금(단위만원) : 임동석 10, 최완철 50 마상순 5, 정종남 4, 유점순 5, 육관용 10 \* 신필누계 - 9,111, 입금누계 - 6,618
- 10. 감사헌금 : 동산신성 20만, 김대철 2만, 이육기 2만

□ 지난주 봉헌금 : 1,181,400원 □ 교무금 : 1,079,000원

**상례** 주임신부 291-8469 사 무 실 291-2018 주임신부 김 순 태  
 F A X 291-2018 수 언 원 291-3196 사목회장 강 영 만

- ◎ 환영! 이 올리아나 수녀님 환영합니다! 특별! 본당을 위하여 애써 주신 김 데레사 수녀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항상 영육간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1. 금주 모임 : ① 셋별, 승리의 여왕 푸리아 - 후 7시 ② 애영회 - 공식미사 후
- 2. 차주 모임 : ① 구역(반)장 월례회 - 후 7시 ② 아가페회 - 5일(금) 후 7시
- 3. 알림 : ① 제1차 사제연수 - 2일(화)~4일(목), 나바위 피정의 집 ② 전신자 피정 - 4일(목) 전 10시~ 후 4시, 회비 - 각 3천원 \* 미사없음 ③ 교적정리 및 전화번호 발간준비를 하오니 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4. 감사헌금 : 익명 5만, 정상배(라우렌시오), 박정술(아가다) 각 3만 김희순(마리아), 이정순(세레나), 박진만 각 2만 김수녀(글라라) 1만 \* 감사합니다. 5. 차주 청소 : 마친 및 금반지
- 6. 금주 전례 : 해설특전 - 최승경, 공식 - 김세연 독서특전 - 최승철, 최은경, 봉헌 - 이광일, 이영애 제물봉헌 - 이덕노 부부
- 7. 차주 전례 : 해설특전 - 김옥화, 공식 - 이원규 독서특전 - 고형기, 김옥분, 공식 - 한충길, 이점순 제물봉헌 - 배기승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857,000원 □ 교무금 : 787,000원

**송천1동** 주임신부 254-2778 사 무 실 254-2777 주임신부 박 대 덕 사목회장 이 진 호

- 1. 이주일의 생활말씀 외우고 실천하기 : "이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태 17:5)
- 2. 금주 모임 : ① 요셉회 - 공식미사 후 ② 울프레야 - 2일(화) 후 8시
- 3. 차주 모임 : 푸리아 2차 회합 - 7일 후 2시
- 4. 전입을 환영합니다 : 새로 오신 송천 1동 가족께서는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 5. 1인 1명이상씩 예비신자를 인도합니다! 부활후 교리사자
- 6. 알림 : 사제 연수회 기간중 2일(화)과 3일(수)은 미사가 없습니다. \* 말씀의 전례에 참석하실 분은 이웃본당을 이용해 주십시오.
- 7. 감사 : 강영양(라파엘) 계시관기증

**상삼례** 주임신부 291-0790 사 무 실 291-0832 주임신부 한 병 현  
 수 언 원 291-0833 유 치 전 291-1520 사목회장 이 재 갑

- ◎ 생활 말씀 :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 1. 조(제노베파) 수녀님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환영! 신(히아진나)수녀님 부임을 환영합니다.
- 2. 오늘 모임 : 푸리아 월례회 - 저녁미사 후
- 3. 차주 모임 : ① 사목회, 안나회 - 공식 미사후 ② 아가페, 성모회 - 저녁미사 후
- 4. 저녁미사 시간변경 : 후 7시 → 후 7시 30분 \* 매 주 금요일 후 7시 - 십자가의 길
- 5. 예비신자 교리 : 5일(금) 저녁미사 후, 일요일 전 9시
- 6. 구역(반)장 모임 : 6일(토) 후 7시 30분
- 7. 감사 헌금 : 이양남(루퍼나) 10만, 강신일(야곱) 10만 오영숙(로사리아) 5만, 익명 5만, 김하옥(안나) 3만 \* 감사합니다.
- 8. 금주 전례 : 해설 - 강신준, 저녁 - 청년회, 독서 - 김동진, 이금민, 오영숙, 제물 봉헌 - 김복동 부부
- 9. 차주 전례 : 해설 - 이성희, 저녁 - 청년회, 독서 - 소병길, 강신철, 고순희, 제물 봉헌 - 이재갑 부부
- 10. 성당 청소 : 6일(토) 신자들의 도움, 죄인의 의탁 Pr.

□ 지난주 봉헌금 : 719,000원 □ 교무금 : 515,000원

**송천동** 주임신부 254-8560 사 무 실 274-1004 주임신부 한 기 호  
 보좌신부 254-8561 수 언 원 254-1142 보좌신부 유 진 영  
 F A X 274-1004 사목회장 장 훈 식

- ◎ 사순절을 회개와 보속으로 지냅니다. 1. 요셉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2. 주간모임 안내 : 성심부녀회, 까리따스회 - 2일 전 10시 ② 울프레야 - 2일 후 8시 3. 구역(반)장 월례회 : 3일 후 2시
- 4. 구역(반)장 교역 : 8일(월) 전 10시, 중앙성당 \* 구역(반)장님 참석 바랍니다. 5. 사제 연수회 1차 : 2일~4일, 나바위 피정의 집
- 6. 사목회 임원 임명 : 사제양성 후원부장 - 이정봉(스페라노)
- 7. 사순절 본당 1일 피정 : 10일(수) 10시~후 4시, 강사 - 양경배 신부님
- 8. 초중고생 주일학교 개학식 : 6일, 초등부 버스운행안내 - 후 2시 5분 (서호아파트)→2시 10분(호반비사벌)→2시 20분(미산리)→2시 25분(대명, 쌍용아파트) \* 부모님들의 관심바람
- 9. 3월부터 가정 사목방문이 있게 됩니다. 구역반장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 10. 가정 사목방문 : 5일(금) 후 2시, 1구역 1반(서호아파트 105동)
- 11. 구역미사 : 5일(금) 후 7시 40분 - 23구역(영장아파트) 선미애(아녜스) 자매님 12. 유아세례 : 13일(토) 후 4시, 12일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13. 구역 명칭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계시판을 참조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4. 사랑의 헌혈 운동 : 14일 미사후에 있습니다. 15. 금주 본당청소 : 2구역 6일 전 10시
- 16. 금주 전례 : 해설 - 손춘식, 독서, 봉헌 - 1구역
- 17. 차주 전례 : 해설 - 이정봉, 독서, 봉헌 - 2구역

□ 지난주 봉헌금 : 1,652,590원 □ 교무금 : 1,000,900원

**송천2동** 주임신부 276-1320 사 무 실 252-7366 주임신부 김 병 현  
 보좌신부 252-1606 수 언 원 252-9567 보좌신부 김 시 수  
 F A X 252-7366 사목회장 김 인 선

- 1. 금주 모임 : 요한회, ME모임 - 공식미사 후
- 2. 차주 모임 : 성모회, 푸른순, 하상회 - 공식미사 후
- 3. 성서교실 : 2일(화) 후 8시 \* 마태오 보속
- 4. 합동 십자가의 길 : 매 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 5. 고구 사제 연수회 : 2일(화)~4일(목), 나바위 피정의 집
- 6. 아이에스 행사 : 7일(일) 후 2시 \* 레지오 단원은 전원 참석 바랍니다.
- 7. 가정 방문 : 6구역 32만
- 8. 축! 혼배 : 7일(일) 12시  
 신랑 - 김형기씨의 장남 김용철 군  
 신부 - 김보형(베드로)씨의 3녀 김미진(아녜스)양
- 9. 안쓰는 물건 수집합니다 : 의류, 생활품, 장난감 등 \*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10. 감사 헌금 : 오정근, 김인자 각 10만원, 이철원 5만, 이봉근 3만원
- 11. 다음주 본당 청소 : 3구역 14만 \* 미사안내 : 평화의 모후 Pr.
- 12. 금주 전례 : 해설 - 기준준(시메온), 독서 - 소을용, 구수자
- 13. 차주 전례 : 해설 - 양백용(요셉), 독서 - 김공목, 정동민

□ 지난주 봉헌금 : 1,738,240원 □ 교무금 : 2,321,000원

□ 2차 헌금 : 494,160원

- 8. 의자 및 비품마련을 위한 감사헌금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9. 금주 전례 : 해설 - 백기철(요한), 독서 - 소종호(벨라도)부부
- 10. 차주 전례 : 해설 - 김의식(베네딕도) 독서 - 이석우(라우렌시오)부부
- 11. 금주 청소안내 : 6구역, 우리들의 어머니 Pr. 황금궁전 Pr.

□ 지난주 봉헌금 : 945,750원 □ 교무금 : 382,000원